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 연준, 기준금리 0.25%p 인상 ▮ '26-9-16 미 연방준비제도

-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기준금리를 3.75~4.00%로 0.25%p 인상
- 연준은 성명발표를 통해 경제활동이 “건조한 속도로 확장”되고 생산성 증가와 설비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하는 한편, “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”이라며 이번 조치가 2% 목표로의 조기 복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
- 7월까지 5회 연속 동결하며 3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던 데서 9월에는 만장일치 인상으로 전환

❖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반전 시, 수입 농자재 가격 영향 점검 필요

● 국제유가, 두바이유 120달러대...사우디 송유관 피격에 공급 차질 ▮ '26-9-16 Reuters; '26-9-16 BBC

- 두바이유는 9월 16일 배럴당 128.00달러까지 상승한 뒤 17일 123.70달러로 소폭 하락. 같은 날 브렌트유는 104.82달러,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101.91달러를 기록
- 두바이유(현물)가 브렌트유(선물)를 20달러가량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며,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국내 도입 기준 유종에 집중적으로 반영
- 사우디는 홍해 안부항으로 원유를 보내던 동서송유관이 드론 공격으로 멈추자, 호르무즈 해협 밖 오만 소하르 해역에서 선박 간 이송(STS) 방식으로 아시아 장기계약 물량 공급을 확대

❖ 두바이유 연동 비중이 높아 도입단가 부담이 큰 만큼, 비료·사료 등 농자재 수입 가격 전이 지속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8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2.4% 하락 ▮ '26-9-15 한국은행

- 8월 수입물가지수(원화기준)는 국제유가가 올랐음에도 원/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화학제품·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.4% 하락(전년동월대비 15.6% 상승)
-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3.2% 상승,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수입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남. 두바이유 월평균은 7월 76.75달러에서 8월 88.75달러로 15.6% 상승
- 수입 농림수산물은 전월대비 4.7% 하락(전년동월대비 7.5% 상승). 품목별로 커피는 전월대비 9.3% 하락한 반면 옥수수는 전년동월대비 17.2% 상승

❖ 환율 하락으로 가려진 유가 상승 부담이 환율 반전 시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 점검 필요

● 8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.2% 상승 ▮ '26-9-18 한국은행

-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동월대비 7.9% 상승). 공산품과 서비스가 보합에 그친 가운데 농림수산물이 3.8% 올라 상승 주도
- 농림수산물은 농산물 4.9%, 축산물 2.8% 상승. 품목별로 시금치가 전월대비 51.9%, 돼지고기가 5.4% 올랐고 쇠고기는 전년동월대비 16.5% 상승
- 배합사료는 양우용이 전년동월대비 5.1%, 양돈용이 4.7% 올랐고, 산업용도시가스는 전월대비 11.0%·전년동월대비 37.8% 상승

❖ 전체 생산자물가는 보합, 농림수산물과 사료·에너지 비용만 상승, 추석 이후 농축산물 수급농가 경영비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, 농림수산 분야 GX 기술 해외전개 패키지 공표 ■ '26-9-17 일본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 5월 수립한 「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해외전개 패키지」를 개정해 「농림수산 분야 GX 기술 해외전개 패키지」(통칭 MIDORI∞INFINITY)로 공표
 - 대상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변화 적응·순환경제·생물다양성 보전까지 확대하고, 바이오스티물런트·식물공장·육상양식·산림을 활용한 생태계 기반 재해위험 경감(Eco-DRR)·미이용 자원 순환 이용 등을 추가
 - 간단판개(AWD), 바이오차 농지 시용, 생물적 질산화 억제(BNI),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 등에 대해 조사대상국 별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한 예산·투융자 정보도 수록
- ❖ 일본의 감축기술 수출 연계 전략에 대응해, 우리 농업 녹색기술 해외 전개 전략 검토 필요

● 미 농무부 경제조사국, 최혜국 관세와 미국 농산물 무역 보고서 발간 ■ '26-9 USDA ERS

- 미 농무부 경제조사국(ERS)은 세계무역기구(WTO) 2025년 관세 프로파일을 이용해 미국과 150여 개 교역상대국의 농산물 최혜국(MFN) 관세를 비교
 - 전 품목 평균 최혜국 실행관세는 8.1%인 반면 농산물은 13.4%로 비농산물(7.2%)의 두 배 수준이며, 미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는 전 세계 90% 이상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
 - 분석 대상 10개 품목군 모두에서 미국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 직면하는 관세가 더 높았고 절반은 격차가 약 10%p. 산동물·육류, 음료·담배, 과일·채소, 커피·차·코코아, 곡물·조제식료품에서 격차가 큼
- ❖ 미국이 관세 격차를 근거로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, 우리 농산물 관세 체계에 미칠 영향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식품부, 추석 성수품 계획 대비 109.1% 공급 ■ '26-9-14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, 9.14 차관 주재 추석 민생안정대책 점검회의서 13대 성수품 계획 대비 109.1% 공급 중이라고 밝힘
 - 할인 지원 규모 590억→1,490억 원 확대, 기간도 9월 23일에서 30일까지 연장. 유통업체 4,000여 개소에서 최대 40%, 20개 식품기업도 4,765개 품목에 최대 64% 할인
 - 농산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과 일조량 부족으로 출하가 줄어든 애호박은 다소 높은 수준.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감소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높은 편이며, 한우는 9월 12~24일 집중 할인 추진
- ❖ 할인 재정으로 명절 물가는 관리되나 사육 마릿수 감소는 구조적 요인인 만큼 추석 이후 수급 대책 필요

● 농협법 시행령 개정, 내부통제·회계 투명성 강화 ■ '26-9-14 농림축산식품부

- 「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이 9월 11일 공포·시행되어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, 내부통제기준 마련,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이 도입
 - 외부회계감사는 기존 4년 주기에서 자산총액 3,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, 500억 원 이상 3,000억 원 미만 조합은 2년마다로 단축.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
 - 조합은 적법절차·위험관리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, 중앙회는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전무이사·이사회에 통지
- ❖ 조합의 회계·내부통제 부담이 커지는 만큼, 소규모 조합의 이행 역량과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